

서울 및 경기지역 가정에서의 얼음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장 정 옥 · 이 영 미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The Utilization of Ice at Home in Seoul and Kyunggi-Do Area

Jeong Ock Jang and Young Mee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development points for automatic ice maker which met consumer's demand. Basic data about using ices in Korean's dietary life, were collected from Seoul and Kyunggi-do residences and analyzed by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93.7% of respondents had 3 major domestic brands' refrigerator and 41.4% of them had medium-large capacity(400~519L). 65% of respondents had a refrigerator that was purchased less than five years. 15.5% of respondents had one more refrigerator. Among of them, major refrigerator was located in kitchen(67.7%) and minor was in kitchen(29.8%) and in veranda or multi-purpose room(26.3%). 66.2% of respondents always prepared ices in ice container, and 85% of them used ice only in summer. Boiling water with barley or corn was used as drinking water(45.6%) and boiled or purified tap water was used to make ice(38.6%) commonly. In cooking, ice was used especially in cold soup with cucumber and seaweed(89.9%), ice-tea or ice-coffee(81%), and fruit punch(64%). The next commonly using ice was adding in alcoholic beverage such as whiskey(57.4%), in Koreans traditional drink(Misugaru)(45.2%) and juice. The purpose of using ice was to cool in soft drink(58.6%), to cool in cooking food(19.9%), to eat ice itself(14.0%), and to enjoy more fantastic taste and mood(3.8%). In whiskey, the purpose of using ices was to control alcoholic content(52.9%).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x in the purpose of using ice,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ge($p < 0.05$).

Seasonal variations in using i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age, roles in family, amount of preparation of ice, socio-economic level and brand and capacity of refrigerator in respondent's home.

Key words: ice

I. 서 론

여름철에 얼음으로 더위를 면하고 식품의 부패를 막아 보자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얼음을 얻기위하여 높은 산 위의 얼음이나 겨울철의 강이나 호수의 얼음을 얼음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였다. 주례에 의하면 “빙인”이란 직책이 있어서 얼음을 관리하였으며, 종묘나 사직의 제사에 얼음을 쓰고 또 임금에 첫번째로 사용하고,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늙은 사람, 환자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진 시대에는 구리로 만든 얼음 상자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최초의 얼음 상자이다¹⁾.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유리왕때 장빙고를 만들었고 중국 문헌인 신당서에 보면 신라 사람들은 여름철에 음식을 얼음위에 놓고 먹었다고 한다. 신라 지증왕 7년에 이미 조정에서 겨울에 얼음을 떠 장빙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하고 빙고전이란 관청을 두고 있으며 경주 월성터에 있는 빙고는 그 무렵의 것이다.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천도 얼마 후에 한강변 지금의 서빙고 파출소 자리에 빙고를 만들어 장빙을 했다²⁾. 보존방법으로서의 냉장법은 빙하시대 이래로 쪽 알려져 왔었다. 캐나다 북부의 어민들은 물고기를 얼어 붙은 바닷가에 구멍을 파서 묻어 두었으며 서기 16세기 경에 인도의 무갈황제들은 여러 명의 교대용 기수들을 보내어 힌두 쿠시로 부터 델리까지 과일향이 나는 소르베, 즉 얼음과자를 만들기 위한 얼음과 눈을 가져 오도록 했다. 이탈리아인들은 17세기 초에 산의 얼음을 이용하여 오늘날 아이스크림이라고 알려진 것을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³⁾. 미국의 음식 문화는 얼음은 신선하며 안전하다는 등식이 체질화 되어 그들의 냉동식품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고 신앙에 가까울 정도다.

기후조건과 천연 얼음의 유용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제빙기술은 19세기 이후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가정생활도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의 과학화, 편리화를 위하여 가사 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기의 구매가 늘고 있다. 냉장고는 가정의 식생활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생활 기기이다. 수입개방과 국민소득의 수준이 10,000달러가 넘으면서 생활기기의 부가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⁴⁾. 본 연구는 냉장고의 사용에 있어서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얼음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얼음을 다량 제조하여 필요할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냉동실의 자동 제빙장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간다는 보고⁵⁾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식생활 유형과 식생활 관리 차원에서 가정에서의 얼음의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도에 적합한 자동 제빙기의 개발 방향의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에 위하여 표본의 추출은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분류 후 각 지역에서 일정 비율로 표본을 선정 추출하는 임의 할당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지역을 분류한 후 조사 지역에서 5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법으로 응답자와 개별 면접하는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자가 조사 가구를 방문 하여 가구구성원 중 면담 가능자를 택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담에 의해 질문에 응답하면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얼음 사용에 대한 관심 및 기억이 높은 시기인 여름을 선택하였으며, 1995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된 가구를 조사한 후 이 중 유효한 474 표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 PC+ WINDOW(version 6.1)로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량 자료를 제외한 474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문항의 척도는 명목척도와 등간척도, 서열척도, 5점척도를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독립변인과 얼음사용실태 변인간 교차분석후 χ^2 -test를 통한 독립성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표본(총 474명 응답자 중) 구성에 있어서 남자는 74명으로 15.8%이고 여자는 399명으로 84.2%이다.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이 6.1%, 21~25세는 22.1%, 26~30세는 10.7%, 31~35세는 11.4%, 36~40세는 14.2%, 41~45세는 12.4%, 46~50세는 15.9%, 그리고 51세 이상은 7.2%이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5.1±11.9세, 연령의 범위는 14~79세이다. 가정내의 역할은 주부가 66.7%로 가장 많으며, 아들, 딸등 자녀가 29.9%, 남편이 2.4%, 동거인이 1.1%, 가사조력자가 0.9%이다. 가정내에 동거하고 있는 가족수를 조사한 결과 4명이 40.0%로 가장 많으며, 5명은 21.3%, 3명은 21.5%, 2명이 7.8%, 6명이 6.3%이고 7명이상은 1.8%, 독신이 1.3%로 구성되었다. 주택 형태별 주거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가 43.9%, 연립 다세대 주택이 18.0%, 단독 주택의 단층이 16.3%, 단독 주택의 2층은 21.6%였으며 오피스텔등 원룸형태는 0.2%였다.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은 사전 교육을 통하여 조사 대상 가구의 거주 공간의 크기 및 가구 집기의 종류와 수준을 중심으로 조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활 수준 평가에 대한 지침에 준하여 조사대상자의 생활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사자의 판단 기준과 함께 응답자의 계층 귀속 의식을 참고로 하여 조사자의 판단에 의하여 현재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는 중류층이 59.8%, 상류층이 0.7%, 중상류층이 27.8%, 중하류층이 11.6%, 하류층은 0.2%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냉장고 보유현황

조사 대상자들의 냉장고 보유 현황은 국내 가전 3사 제품이 93.7%, 외제냉장고 보유 비율은 6.3%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전 체		빈도 (%)	
성 별	남자	74	15.8
	여자	395	84.2
	합계	469	100.0
연 령	20세 이하	28	6.1
	21~25세	101	22.1
	26~30세	49	10.7
	31~35세	52	11.4
	36~40세	65	14.2
	41~45세	57	12.4
	46~50세	73	15.9
	51세 이상	33	7.2
	합계	458	100.0
가정내 역할	주부	312	65.8
	남편	11	2.3
	아들, 딸 (자녀)	142	30.0
	동거인	5	1.1
	가사조력자	4	0.8
합계	474	100.0	
동거가족 수	1명	6	1.3
	2~3명	139	29.3
	4~5명	291	61.3
	6명이상	39	8.1
	합계	475	100.0
주거형태	아파트	208	43.9
	연립	85	18.0
	단독단층	77	16.3
	단독2층	102	21.6
	오피스텔	1	0.2
합계	473	100.0	
생활 수준	상	3	0.7
	중상	132	27.8
	중	283	59.7
	중하	55	11.6
	하	1	0.2
	합계	474	100.0

있는 냉장고는 응답자의 41.4%가 400~519L의 중대형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응답자의 30.9%가 250~399L의 중형을, 응답자의 14.5%는 520L이상의 대형을, 13.2%는 249L이하의 소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89년 이후 보유냉장고의 용량에 대

한 요구가 400L이상으로 대형화되고 있다는 추세⁵⁾를 반영한 것이라 사료된다.

조사 대상자가 소유한 냉장고는 구입한 후 평균 3년 9개월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65%가 구입한지 5년 이내의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입한지 10년 이상된 냉장고 사용자도 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정에서 냉장고를 소유한 댓수는 1대가 전체 응답자의 84.5%, 2대 이상이 15.5%로 조사되었다. 2대 이상 소유한 이유로는 주냉장고의 용량 부족이 가장 높으며(68.3%), 다음이 냄새나는 식품과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또는 야채나 과일 등을 따로 보관하려는 이유에서 2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냉장고의 설치 장소는 부엌(67.7%)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식당(18.4%), 거실(10.5%), 다용도실 혹은 베란다(2.4%)로 조사되었다. 보조냉장고의 위치는 부엌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베란다 및 다용도실이 26.3%, 거실과 식당이 각각 15.8%, 자녀 침실에 배치하는 비율이 7.0%, 부부침실 5.3%이며, 서재에 배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3. 가정에서의 얼음 사용 실태

가정에서 얼음을 첨가하는 음료 및 음식의 종류와 첨가하는 목적 그리고 요인별 얼음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인별 얼음의 사용 목적

음료수등을 차게 하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58.8%, 음식을 차게하는데 사용하는 비율이 19.7%, 얼음 자체로 그냥 먹는 비율이 14.1%, 음료나 음식을 멋있게 즐기려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 3.9%,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비율이 3.6%로 조사되어 얼음의 주 사용도는 음료수를 차게 하는데 이용되나, 얼음 자체를 그냥 먹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음 사용 이유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소유 냉장고 유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얼음 사용 이유에 있어서 남녀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여자의 경우 얼음 자체를 그대로 먹는 비율

Table 2. 조사대상자의 냉장고 보유현황

전 체		(%)
냉장고 model	국내가전 3사제품	444 (93.7)
	외제	30 (6.3)
합 계		474(100.0)
냉장고 용량	520L이상(대형)	69 (14.5)
	400-519L(중대형)	20 (41.4)
	250-399L(중형)	15 (30.9)
	249L이하(소형)	63 (13.2)
합 계		167(100.0)
냉장고의 구입 년도	1985년 이전	25 (5.2)
	1986~1987년	26 (5.6)
	1988~1989년	65 (13.8)
	1990~1991년	87 (18.3)
2대 이상 소유 이유	1992~1993년	170 (33.7)
	1994~1995년	111 (23.3)
	합 계	474(100.0)
냉장고 소유 댓수	1대	401(84.5)
	2대	73(15.5)
합 계		474(100.0)
2대 이상 소유 이유	용량부족	41 (68.3)
	야채 과일 저장용	5 (8.3)
	새냉장고 구입시	3 (5.0)
	버리기 아까워	8 (13.3)
	냄새나는 식품	2 (3.3)
	분리보관	1 (1.7)
	냉동고가 필요해서	
	기타	
	합 계	60 (100.0)
	주 냉장고의 위치	부엌
식당		87 (18.4)
거실		50 (10.5)
다용도실 베란다		11 (2.4)
기타	기타	5 (1.0)
	서재	0 (0.0)
합 계		474 (100.0)

이 남자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가정에서 얼음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에 따른 얼음 사용 이유는 21세에서 25세 이하 집단에서는 타 연령 집단에 비하여 얼음 자체를 그냥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1~25세 연령층이 타 연령층보다 음료수를 차게 먹기 위하여 얼음을 사용한다

Table 3. 성별에 따른 얼음의 사용 목적 N(%)

성별	남	여	합계
음료수를 차게	43 (9.8)	216 (49.0)	259 58.8
술을 마실 때	5 (1.1)	11 (2.5)	16 3.6
얼음 자체	6 (1.4)	56 (12.7)	62 14.1
음식물 차게	11 (2.5)	76 (17.2)	87 19.7
멋스럽게	2 (0.5)	15 (3.4)	17 3.9
소 계	67	374	441
총합계	15.2	84.8	100.0

P<0.05

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식사를 즐기는데 멋스러움을 더하기 위하여 얼음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40세의 집단이 가장 높았다.

2) 음료나 음식에서의 얼음 사용 빈도와 목적

얼음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음식(항상 얼음을 첨가하는 군과 자주 사용하는 군과 가끔 얼음을 첨가하는 군을 합한 비율)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인 콩국이나 오이냉국이며, 다음이 아이스티나

아이스커피 등 여름철에만 섭취 빈도가 높은 음료, 과일화채이었다. 이중 항상 얼음을 첨가한다고 응답한 음식은 아이스크피나 아이스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콩국이나 오이냉국이었다. 얼음 사용 빈도에 대하여 음료 종류별 얼음의 첨가 비율은 위스키 등의 술에 첨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미숫가루를 탈 때, 실온에 보관한 탄산 음료나 쥬스를 마실 때, 실온으로 보관한 보리차나 생수 등을 마실 때, 의 순서였다.

※음료나 음식에서의 얼음 사용빈도와 목적

실온 보관 혹은 냉장 보관한 보리차 등 음용수나 탄산음료수 (냉장보관 87.3%, 실온 보관 90.4%)의 경우 차게 먹기 위하여 얼음을 첨가하는 비율이 조리 음식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냉장 보관 92.2%, 실온 보관 94.3%).

조리 음료 및 조리 음식의 경우 차게하기 위하여 얼음을 사용하는 비율이 미숫가루(84.4%), 다음으로는 과일 화채(85.2%), 아이스크피나 아이스티의 경우(85.6%), 오이미역냉국을 만들 때(87.2%)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용수나 음료보다 얼음 첨가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스키 등의 경우 얼음을 사용하는 목적이 조사대상자의 52.9%가 맛을 열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Table 4. 연령에 따른 얼음의 사용 목적

N(%)

얼음사용연령	20세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50세이상	합 계
음료수를 차게	18 (4.1)	56 (12.8)	27 (6.2)	21 (4.8)	28 (6.4)	36 (8.2)	52 (11.8)	19 (4.3)	257 (58.5)
술을 마실 때	1 (0.2)	6 (1.4)	1 (0.2)	1 (0.2)	2 (0.5)	2 (0.5)	2 (0.5)	1 (0.2)	16 (3.6)
얼음 자체	5 (1.1)	13 (3.0)	6 (1.4)	11 (2.5)	10 (2.3)	9 (2.1)	4 (0.9)	4 (0.9)	62 (14.1)
음식물 차게	4 (0.9)	15 (3.4)	26 (5.9)	9 (2.1)	13 (3.0)	6 (1.4)	8 (1.8)	6 (1.4)	87 (19.8)
멋스럽게		4 (0.9)	2 (0.5)	1 (0.2)	5 (1.1)	1 (0.2)	3 (0.7)	1 (0.2)	17 (3.9)
소 계	28	94	62	43	58	54	69	31	439
총합계	6.4	21.4	14.1	9.8	13.2	12.3	15.7	7.1	100.0

P<0.05

Table 5. 음료나 음식에서의 얼음 사용 빈도 및 사용 목적

음료 및 음식 종류	얼음 사용 빈도					얼음사용 목적 N(%)			
	항상 사용	자주 사용	가끔 사용	거의 사용 안함	전혀 사용 안함	차게 먹으 려고	음식을 멋스럽 게 하 기위해	습관적 으로	열고 부드 럽게 하기 위해
음용수 (냉장)	48 (10.2)	28 (6.0)	70 (15.1)	91 (19.4)	231 (49.3)	165 (92.2)	4 (2.2)	9 (5.0)	1 (0.6)
음용수 (실온)	56 (13.8)	52 (12.8)	104 (25.6)	61 (15.0)	133 (32.8)	215 (94.3)	3 (1.3)	6 (2.6)	4 (1.8)
탄산음료 (냉장)	40 (8.6)	30 (6.5)	56 (12.1)	101 (21.8)	237 (51.1)	137 (87.3)	9 (5.7)	4 (2.5)	7 (4.5)
탄산음료 (실온)	66 (16.6)	59 (14.9)	86 (21.8)	57 (14.4)	127 (32.2)	198 (90.4)	10 (4.6)	3 (1.4)	8 (3.7)
미숫가루	137 (31.1)	62 (14.1)	104 (23.6)	62 (14.1)	76 (17.2)	271 (84.4)	18 (5.6)	11 (3.4)	21 (6.6)
위스키 술등	196 (45.5)	52 (12.1)	68 (15.8)	34 (7.9)	81 (18.8)	82 (26.1)	53 (16.9)	13 (4.1)	166 (52.9)
콩국이나 오이냉국	247 (54.4)	85 (18.7)	76 (16.7)	23 (5.1)	23 (5.1)	347 (87.2)	23 (5.8)	14 (3.5)	14 (3.5)
과일화채	227 (50.4)	81 (18.0)	63 (14.0)	43 (9.6)	36 (8.0)	310 (85.2)	33 (9.1)	11 (3.0)	10 (2.7)
아이스크림 피나 아이스티	310 (68.6)	56 (12.4)	39 (8.6)	24 (5.3)	23 (5.1)	346 (85.6)	22 (5.4)	14 (3.5)	22 (5.4)

즉 농도 조절의 목적이 가장 크며, 다음이 차게 하기 위하여(26.1%), 멋스럽게 즐기기 위함인 16.9%, 별다른 목적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4.1%로 조사되었다.

3) 요인별 얼음사용 시기의 차이

얼음 사용의 계절적 특성에 있어서는 남녀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p<0.05), 남자의 경우 얼음 사용의 계절적인 차이가 여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라서도 얼음 사용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며(p<0.05), 식생활을 주도하는 주부나 가사조력자의 경우 여름에 얼음 사용이 많은 것으로, 그 외의 가족은 여름철에 얼음 사용율도 높지만 다른 계절의 얼음을 사용하는 비율이 주부에 비하여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평소의 얼음 준비량과 얼음 사용 시기 사이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평소에 얼음을

일정량 준비해 두는 집단이나 따로 얼음 저장 그릇에 보관하는 집단에서는 얼음 사용 시기가 여름에 편중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으며, 즉 사시사철 얼음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제냉장고 소유 집단이 여름이외의 철에도 얼음 사용

Table 6. 성별에 따른 얼음 사용 시기의 차이 N(%)

성 별	남	여	합 계
여름만	22 (4.7)	141 (30.1)	163 (34.8)
주로 여름 + 그외도 많이	13 (2.8)	37 (7.9)	50 (10.7)
주로 여름 + 그외는 조금	31 (6.6)	204 (43.6)	235 (50.2)
사시사철 비슷	8 (1.7)	12 (2.6)	20 (4.3)
합 계	74 (15.8)	394 (84.2)	468 (100)

P < 0.005

Table 7. 가정에서의 역할에 따른 얼음 사용 시기의 차이

N (%)

가정에서의 역할	남편 (%)	주부	딸	아들	동거인	가사조력자	합 계
여름만	4 (0.9)	114 (24.4)	24 (5.1)	18 (3.9)	1 (0.2)	2 (0.4)	163 (34.9)
주로 여름 + 그외도 많이	2 (0.4)	28 (6.0)	9 (1.9)	10 (2.1)	1 (0.2)	50 (10.7)	
주로 여름 +그외는 조금	2 (0.4)	154 (33.0)	47 (10.1)	27 (5.8)	2 (0.4)	2 (0.4)	234 (50.1)
사시사철 비슷	3 (0.6)	11 (2.4)		5 (1.1)	1 (0.2)		20 (4.3)
합 계	11 (2.4)	307 (65.7)	80 (17.1)	60 (12.8)	5 (1.1)	4 (0.9)	467 (100.0)

P<0.005

Table 8. 평소 준비량에 따른 얼음 사용 시기의 차이

평소 얼음의 준비량	필요시 조금씩 만듦(%)	일정량	따로 저장그릇에 보관	있으면 사용	합 계
여름만	35 (7.5)	93 (19.9)	15 (3.2)	21 (4.5)	164 (35.1)
주로 여름+ 그외도 많이	2 (0.4)	37 (7.9)	8 (1.7)	2 (0.4)	49 (10.5)
주로 여름 +그외는 조금	19 (4.1)	164 (35.1)	32 (6.9)	19 (4.1)	234 (50.1)
사시사철 비슷	1 (0.2)	16 (3.4)	2 (0.4)	1 (0.2)	20 (4.3)
합 계	57 (12.2)	310 (66.4)	57 (12.2)	43 (9.2)	467 (100.0)

P<0.005

Table 9. 생활수준에 따른 얼음 사용 시기의 차이

생활수준	상	중상	중	중하	하	합 계
여름만	1 (0.2)	37 (8.2)	90 (20.0)	28 (6.2)		156 (34.7)
주로 여름+ 그외도 많이	1 (0.2)	18 (4.0)	25 (5.6)	4 (0.9)		48 (10.7)
주로 여름 +그외는 조금	65 (14.5)	142 (31.6)	19 (4.2)	1 (0.2)	227 (50.6)	
사시사철 비슷	1 (0.2)	5 (1.1)	11 (2.4)	1 (0.2)		18 (4.0)
합 계	3 (0.7)	125 (27.8)	268 (59.7)	52 (11.6)	1 (0.2)	449 (100.0)

P<0.05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53$). 소유 냉장고의 용량에 따른 얼음 사용 시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형 혹은 소형 소유 집단이 대형이나 중대형 소유 집단에 비하여 얼음 사용 시기가 여름에만 편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요약 및 제언

서울 및 경기도지역의 거주자중 임의 할당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500가구를 표본추출, 훈련된 조사원이 폐쇄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법으로 얼음사용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얼음사용에 대한 관심 및 기억이 높은 1995년 8월중 1주일간 조사하였다.

1. 조사 대상자들의 냉장고 보유 현황은 국내 가전 3사제품이 93.7%, 400~519L의 중대형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41.4%, 응답자의 65%가 구입한지 5년 이내의 냉장고를 소유(평균 3년 9개월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유 대수는 1대가 전체 응답자의 84.5%, 주냉장고의 설치 장소는 부엌이 67.7%로 가장 많으며, 보조냉장고는 부엌 29.8%, 베란다 및 다용도실 26.3%로 조사되었다.
2. 얼음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음식은 오이미역냉국(89.9%), 아이스티나 커피 등 여름철에만 섭취 빈도가 높은 음료 (81%), 과일화채 (64.8%)등이며, 얼음 사용 빈도는 위스키등의 술에 첨가하는 경우(57.4%), 미숫가루를 탈 때 (45.2%), 그 밖에 실온에 보관한 탄산 음료나 쥬스를 마실 때 첨가하는 비율이 31.7%로 조사되었다.
3. 얼음의 사용 목적으로는 음료수등을 차게 하는데 58.8%, 음식을 차게하는데 19.7%, 얼음 자체로 그냥 먹는 비율이 14.1%, 음료나 음식을 멋있게 즐기려할 때 3.9%, 술을 마실 때 사용하는 비율이 3.6%로 조사되어 얼음의 주 사용도는 음료수를 차게 하는데 이용되나, 얼음 자체를 그냥 먹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얼음 사용 이유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소유

냉장고 유형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얼음 사용 이유에 있어서 남녀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사용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얼음 사용의 계절적 특성은 남녀별, 연령층별, 가정에서의 역할 및 사회 경제적수준과 평소의 얼음 준비성, 소유 냉장고 제품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얼음의 사용은 여름철이 가장 많으나 그 이외의 철에도 그 사용이 빈번해가는 추세이며 얼음을 사용하는 목적 또한 음식을 차게 하는 것 이외의 다양한 용도가 추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얼음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어가며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얼음 사용이 증가됨에 근거하여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제빙 및 얼음관리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참고문헌

1. 이성우, 고대한국 식생활사 연구, 향문사, 서울, 174, 1992.
2. 이규태, 우리의 음식 이야기, 기린원, 서울, 168, 1991.
3. 손경희, 식품 문화사, 효일문화사, 서울, 383-391, 1991.
4. 김우경, 주부들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조리원리 및 조리 방법 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2):157, 1992.
5. 채정숙, 제품관여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1):133, 1992.
6. 지정수, 고경애, 가족의 가사 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67, 1985.
7. 강미옥, 이승신, 소비자의 정보 탐색활동에 관한 연구-가전제품의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1):149, 1992.
8. 남인우, 가전제품의 소비자의 불만족과 불평행동에 있어 의견선도적 혁신자와 일반소비자의

- 차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9. 김영인, 김기숙, 한국대도시 가정의 부엌설비 및 조리 기구에 관한 실태 조사, 한국조리과학회지, 6(1):1, 1990.
10. 김태협, 냉장고 재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1. 강인희, 한국의 맛,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서울, 1988.
12. 한복녀, 떡과 과자, 대원사, 서울, 1990.
13. 한복녀. 뿌리깊은 나무, 여름음식, 대원사, 1990.